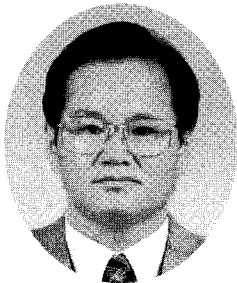


'올바른 농약 사용' 만이 안전농산물 생산의 지름길

2% 부적합농산물 없어야 98% 적합농산물 신뢰 커져
관계기관·업계·농업인의 노력 어우러졌을때 불신 사라져



최 홍 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가지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 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라도 있으면 농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가 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등 그 반응은 매우 민감하다.

그러므로 이제 안전농산물 생산은 수입개방화 시대에 우리농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등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 사용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재배 농산물에 대하여는 생산·저장·출하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정도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자율폐기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력, 장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금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가지원(구 국립농산물검사소 경

표 1. 99상반기 안전성조사결과 검출빈도 높은 주요성분

농약성분	농 약 명 (상표명)	전류농약이 허용기준이상 검출된 작물	적 용 작 물
클로르피리포스	그로포, 다스반, 명사수, 진졸탄, 아무진, 강터차, 진금탄, 강탄, 승부수, 톨단, 부리바, 세로탄, 헥사프루무론·그로포	상추, 시금치, 썩갓, 근대, 들깻잎, 부추, 열무, 취나물, 치커리, 아욱, 풋고추	사과, 감귤, 복숭아, 유자, 배, 배추, 양배추, 양파
키보투란	후리단, 큐리텔, 키보탄, 키보텔, 명글비	상추, 부추, 대파, 들깻잎, 아욱	벼
클로로타로닐	타로동, 다모아, 다코닐, 금비라, 타로닐, 파순곤, 알쿨, 아라리, 펜코나졸·타로닐	상추, 시금치, 열갈이	사과, 복숭아, 포도, 오이, 고추, 토마토, 감자, 양파
프록시미돈	프로파, 스피렉스, 너도사, 팜이탄, 프로파, 디에쓰모르프	들깻잎, 상추, 시금치	딸기, 오이, 부추, 토마토, 고추, 상추, 포도, 수박
다이아지논	다이아톤, 시나나, 다이아금, 다수진, 다수박	썩갓, 열갈이	벼, 배추, 고추, 마늘
엔도살판	마릭스, 지오릭스	시금치, 근대, 열무	배추
에트프로포스	모렐, 다렐	썩갓	고추, 마늘, 감자, 명콩
치아벤다졸	판아시	콩나물	느타리버섯
이피엔	이피엔	시금치, 열갈이, 열무	사과, 감귤, 배
디크로보스	디디브이피, 브이피, 란백	근대	사과, 복숭아, 감귤
펜토에이트	엘비, 파비, 엘산, 싸디알, 파프	썩갓, 열갈이	벼, 사과, 오이, 옥수수
프로파모기브	프리엔, 파모	상추, 열갈이	담배, 고추, 양파, 생강

기지소)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생산된 상추, 썩갓, 시금치, 들깻잎 등 60품목의 농산물을 재배·저장·출하과정에서 시료 총 3천2백71점을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정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2.1%(68점)로 98년도 4.0%에 비하면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그 동안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조사 강화 및 지속적인 농약안전사용 교육, 지도가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전환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농약의 올바른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 금년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결과 검출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등 11종과 살균제 클로로타로닐 등 9종

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분의 농약들이 공통적으로 검출된 농작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농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상추, 시금치, 썩갓, 근대, 들깻잎, 열무 등 거의 모든 엽채류에서 가장 검출빈도가 높은 클로르피리포스성분의 농약은 사과, 감, 복숭아, 배, 배추, 양배추, 양파에 발생하는 진딧물 및 나방류의 방제 약제이다. 상추, 시금치, 썩갓 등 비적용작물에 사용할 경우 적정사용량, 안전사용기준 등이 없어 사용자 임의로 농약을 사용하게 되고 오·남용으로 인한 약해 유발 및 농약 과다잔류 농산물의 생산이 우려된다. 물론 이들 소면적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적기 때문에 농약의 선택에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우선 안전성 부적합농산물에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만이라도 비적용작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전성 부적합농산물의 생산비율을 1%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앞으로 관련기관 및 농약제조회사는 엽채류와 같이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에 농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농업인은 농약의 라벨(설명서)에 표시된 적용작물과 사용약량, 수확전 마지막 살포시기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고 지도기관은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농약안전사용지도를 한다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98%이상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언론에서 부적합한 부분만 확대 보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대다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언론에서는 우리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약정보**